

지역 매아리

고창소방서, 문자·앱 활용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알림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119신고 매체 확산 및 첨단 접수체계를 통한 대국민 119 신고접수서비스를 제공하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의 방식으로 119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로 출동 대원에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현장에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매체 신고 방법은 ▲ 문자 및 사진, 동영상 등의 문자메시지 ▲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영상통화 ▲ 사전에 '119신고앱' 어플을 활용할 경우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때도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신고 등이 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기억하세요!

고창군, 내년 PLS 전면시행 앞두고 홍보 총력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1억분의 1)이상 검출될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농약 살포시 재배작

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는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가는 100만원 이하, 농약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 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터미널, 농업기술센터, 14개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PLS 홍보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14개 읍·면사무소와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약속으로 농가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PLS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29일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힐링데이'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힐링데이' 송년행사 개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9일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동균,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 '힐링데이'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심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 등록 회원 및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 송년행사는 올 한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영상물 상영과 최영인 명칭의

판소리 공연이 실시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 한해 정읍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읍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수요의 발굴과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읍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임산물 6차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기본 구상을 결정했다.

유 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 14명과 유관기관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강희모 교수, 정읍산업조합 김민영 조합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날 30일에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수렴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관계자의 기본구상 계획안과 세부 사업별 기본계획안을 청취한 후 질의를 통해 세부사업안을 재점검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국비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정읍시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차(茶)'를 주제로 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차향문화관·차향센터·차향기근 등을 조성하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차와 관련한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체험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주변의 국민여가캠핑장을 비롯한 시립박물관, 내장산 워터파크 등을 찾는 방문객에게 그윽한 차향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용역은 임산물 6차산업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이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쁜 아침, 식사는 건강한 라이스 쿠키로

부안참뽕 라이스 쿠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 성과품평회 대상 수상

최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 2018년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성과품평회에서 부안참뽕 라이스 쿠키가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참뽕 누룽지 과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와 부안지하센터에서 운영하는 품마을(대표 김희숙), 호원대학교 이정에 교수가 함께 품마을 대표 상품인 누룽지와 쌀, 오디, 빵알, 호박고구마 등 부안농산물을 활용하여 아철식사를 거르기 쉬운 청소년과 디지털 시장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개발한 건강식품이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사업은 도내 식품기업의 아이디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기술력을 토대로 상품개발 기술과 포장디자인, 소비자 평가, 영양성분분석, 판매 전략을 확립하여 기술전수를 통해 도내 소규모 농업체를 육성하는 전라북도 농식품 육성 전략 사업으로 부안군은 대상을 수상한 품마을의 '부안참뽕 라이스 쿠키' 3종과 해당은(대표 윤영성) 부안오디뽕 쌀산물을 활용한 점동방식 오방색 '맛있는 자연' 5종을 개발하여 특허출원과 판매 준비를 마쳤다.

부안 누룽지 수제 과자인 '부안참뽕 라이스 쿠키'는 2019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 HACCP 인증 진행중이며 해당은 '맛있는 자연'은 부안 로컬푸드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통합방위 회의 개최... 전시 시민의 생명보호·안전대책 마련

29일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유진섭 시장)는 2018년 4/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전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6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 추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경찰서장, 808부대4대대장, 정읍소방서장, 농협정읍시지부장, KT정읍지점장, 정읍시재향군인회장, 정읍교도소장,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정읍우체국장 등 통합

방위협의회 위원과 읍면동장, 예비군지역대장, 여성민방위대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노후 된 전시 동원 지정차량을 10년 이내 생산 차량으로 교체 지정하여 차질 없는 전시 물자수송대책 수립(교통과) △전시 방사능 물질 오염 스프레처 임대해 수립(환경과) △전시 동원 대상 중점관리업체(췌하림 도축육 가공공장) 방호대책 수립(농정과)

△전시 집단 사상자 발생 현장에 사상자 분류 관정을 위한 의사, 간호사 파견 대책 수립(보건위생과) △전시 신속한 전력시설복구를 위한 충분한 정읍시 전력시설 복구 용역업체 확보대책 수립(지역경제과) △다양한 현대전 양상에 대응한 2019년 추무계획의 현행화(실과 소공동) 등 6가지 안전을 상징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 조성한다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유희부지 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29일 유희부지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읍시청에서 가진 이번 협약은 도로공사에서 태인IC인근의 유희부지를 제공하고, 정읍시는 제공된 부지에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변 유희부지 활용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태인 IC주변의 미사용되는 약 8,000㎡의 부지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정읍시는 귀농귀촌학교,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영농체험실습을 위한 소득작물 재배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투입

하여 성토 등을 통한 사업부지 조성 및 영농실습장을 위한 시설하우스, 관료, 농막 등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완료 후 귀농귀촌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품 판매홍보에도 한국 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9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자금 확대를 확정하였으며, 도시민유치지원사업(4억8천)과 체재형가족실습농장(15억)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협약을 통해 정읍시와 도로공사간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귀농귀촌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including '부안오디썩', '부안참뽕', and '솔북봉가'. The ad includes text in Korean describing the wine's quality and health benefits, along with images of gift sets. A cartoon bear character is also present in the top right corner.